

중앙일보

도망치기엔 느려도 너무 느렸다, 호주산불에 코알라 멸종위기

기사입력 2020-01-07 05:02 최종수정 2020-01-07 11:58



호주 북동부를 휩쓸고 있는 산불 속에서 불에 타서 도망가는 코알라의 모습이 공개됐다. 채널 9이 지난해 11월 20일(현지시간) 공개한 영상. [유튜브 캡처]

화상을 입은 코알라가 불이 붙은 나무와 나무 사이를 뛰어다닌다. 하지만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나뭇가지에 걸터앉는다. 지나던 여행객에게 구조된 코알라는 목이 마른 듯 물을 필사적으로 빨아들인다. 6개월째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호주에서 매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라오는 코알라의 모습이다.

지난 가을 시작된 호주 남동부의 산불이 점점 거세지면서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인 코알라가 사실상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미국 뉴스위크,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동물복지전문가들은 산불 피해가 가장 극심한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만 약 8000마리의 코알라가 불에 타 죽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NSW주에 살고 있는 전체 코알라수의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코알라 서식지 80% 불에 타



지난해 12월 27일 호주 아들레이드에서 더위에 지친 코알라가 물을 마시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수많은 동물 중 코알라가 유독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움직임이 느리고, 이동을 싫어하는 습성 때문이다. 생태학자 마크 그레이엄은 이번 산불과 관련된 의회 청문회에서 "코알라는 불의 확산을 피해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서 "특히 기름으로 가득한 유칼립투스잎을 먹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보다 불에 약하다"고 설명했다.

퀸즈랜드대 크리스틴 아담스-호킹 박사도 내셔널지오그래피와의 인터뷰에서 "새는 날 수 있고, 캥거루는 매우 빨리 달릴 수 있다. 하지만 코알라는 너무 느리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로 코알라의 서식지인 유칼립투스 숲의 80%가 불 타 없어지면서, 코알라라는 동물이 독자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기능적 멸종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불로 호주서만 동물 5억 마리 희생



산불을 피해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온 캥거루. [AFP=연합뉴스]

시드니대 생태학자들에 따르면 지난 9월 시작된 대규모 산불로 인해 호주 전역에서 약 5억 마리의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가 희생됐다. 세계자연기금(WWF) 호주 지부는 현지 언론에 “호주의 많은 동물들이 산불에 대처하도록 적응해왔지만, 이번 화재는 야생 동물들이 피하기엔 너무 크고 뜨거웠다”고 밝혔다. 또 “화재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굶주림과 탈수, 질병 등에 노출되어 생명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SNS에는 불에 타 죽은 동물들의 모습이나 코알라와 캥거루 등을 구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미국 서핑선수 켈리 슬레이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린 캥거루가 타 죽은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시해 현지의 끔찍한 상황을 알렸다.



호주 산불로 불에 타 죽은 어린 캥거루. [사진 켈리 슬레이터 인스타그램]

하지만 화재에서 동물을 구하는 방법이나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사이언스 포 와일드라이프(Science for Wildlife)의 켈리 레이 박사는 NSW주 의회에 출석해 “화재 지역에서 야생 동물을 구하기 위한 예산도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규정이 없어 야생동물 보호단체조차도 재난 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해 9월 시작된 이번 산불로 NSW주에서만 약 400만 헥타르에 달하는 녹지가 잿더미가 됐다. 호주 전체로 보면 약 600만 헥타르의 숲과 공원 등이 화마의 피해를 입었다고 BBC는 전했다. 600만 헥타르는 서울특별시의 약 100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5일(현지시간)까지 24명으로 집계됐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 ▶ 노후경유차 과태료 35만원 피하려면? 먼지알지!
-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25&aid=0002965858>